

# 취학연령 하향화 방안에 대한 스웨덴의 대응 사례 연구

한유미\*

호서대학교 유아교육과

## Case Study of coping with governmental policy of lowering school entrance age in Sweden

You Me Han\*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Hoseo Univ.

### 1. 서론

최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저출산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취학연령을 1년 하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취학연령 하향화 방침에 대응하여 유아학급을 도입한 스웨덴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5세 조기입학의 부당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와 대응책 마련에 필요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 2. 취학연령 하향화와 유아학급 현황

1980년대 스웨덴에서는 ECEC 기관과 초등학교의 연계 강화를 위한 세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모든 것을 원상대로 유지하는 것이고, 둘째 취학연령을 7세에서 6세로 낮추는 것이며, 셋째 입학을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당시 두 번째 방안인 취학연령 하향화는 경제 논리에 의해 재정부가 제안한 것이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그러나 1990년 보건사회부가 취학연령 하향화를 다시 제기하면서 부모에게 6세 자녀의 1학년 취학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탄력적인 취학연령제 법안이 교육부 장관 Persson에 의해 발의, 1991년 통과되었다. 이에 지자체는 1997년까지 모든 6세 아동을 위한 유아학급을 준비해야 했다.

현재 스웨덴에는 총 3,445개의 유아학급의 있으며, 대부분은 공립이며, 초등학교 교장이 책임자이다. 6세를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임에도 불구하고 6세아의 미이용률이 10% 이상임을 볼 때 지자체는 유아학급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부모는 이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6세가 압도적이지만 5세와 7세도 일부 있고, 특히 5세의 경우 여아, 7세는 남아의 비율이 높음을 볼 때 5세 입학도 가능하며, 자녀의 발달이 늦는 경우 6세가 되어도 유아학급에 보내지 않고 ECEC 기관을 더 다니거나 7세에 입학할 유예하고 유아학급을 더 다니게 하는 부모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아학급은 초등학교 건물과 물리적으로 근접한 곳에 설치되고 방과후 보육인 레저타임센터와도 유기적인 관계

를 갖고 있다. 또한 유아학급에는 초등교사, 유아교사, 방과후 교사 등 3명이 팀으로 일하며, 학급당 평균 유아는 27명 정도이다. 학제상 의무교육에 편제되고 물리적으로 초등학교 안에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유형은 유아교사가 대부분(75.3%)이다. 교사의 성비는 여성이 93.9%, 남성이 6.1%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ECEC 기관보다는 남자교사의 비율이 적잖이 높다. 또한 1인당 유아학급에 소요되는 연평균 비용은 SEK 47,400으로 ECEC 기관의 절반 이하이며, 의무교육보다도 상당히 낮은 편이다.

### 3. 유아학급 도입의 배경 요인

#### 3.1. ECEC 신념 및 초등교육과의 연계 전통

7세였던 취학연령을 6세로 낮추는 방안이 무산된 것은 유아기를 인생의 황금기로 보는 스웨덴 국민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ECEC와 학교교육의 연계를 위한 전략이 의무화되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 ECEC 기관의 유아에게 초등학교를 1주일에 1번 방문해서 물리적 환경, 미래의 교사, 규칙, 일과에 익숙해지게 하는 것 등이다.

#### 3.2. 방과후 보육과 초등교육의 통합

탄력적인 취학연령 법의 도입 이후 초등학교 안에 보육서비스가 들어와서 초등교사, 유아교사, 레저타임 교사가 동료가 되어 일하게 되었다. 또한 이 법은 6세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의 방과후 보육수요를 급증하게 했고, 방과후 보육을 학교를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로 만들었다.

#### 3.3. ECEC와 초등교육의 연합 교육과정 준비

ECEC와 초등교육의 연합 커리큘럼과 의무교육의 확대(9->10년)가 시도되면서 취학연령 하향화에 대한 논의가 재개됐다. 또한 유아학급은 ECEC 기관과 학교에서 최상의 것이 통합됐기 때문에 모든 유아의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으므로 입학테스트가 더 이상 시행되지 않게 되었다.

### 3.4. 중앙집권화에서 지방분권화로의 변화

지방분권화가 되면서 1990년에는 초중등교사의 소속이 국가에서 지자체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모든 유형의 교사들이 지자체의 고용인이 되었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뿐 아니라 하루 종일 아동에 대한 책임을 함께 맡고 협력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 3.5. 교육부 이관

1996년 ECEC 서비스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과학부로 이관됐다.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이관 과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옮겨온 직원들과 기존의 교육부 직원들로 통합 집단을 형성하는 등 행정기관간의 임무 교대였기 때문에 국민에게 큰 변화를 야기하지 않았으며, 지방 수준에서도 별다른 여파를 일으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된다.

## 4. 유아학급 도입의 평가

### 4.1. 유아 수준: 6세의 경험 변화

자녀, 특히 남아를 유아학급에 보낸 부모들은 자녀가 과거보다 더 많이 학습한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또한 ECEC 기관과 유아학급은 물리적 측면에서 상당히 유사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상호작용의 경우에도 ECEC 기관에서는 씨클타임에서 비형식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반면 유아학급에서는 자기 차례가 아니면 조용히 있어야 하며 손들고 답하는 등 훨씬 형식적 상호작용이 나타난다. 국가 수준 평가에서도 유아학급에서는 놀이를 강조하거나 개별 유아의 흥미와 속도에 융통적으로 맞추기보다 ECEC 기관보다 과목중심, 기술중심의 가르침이나 학업성취에 관한 기대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유아학급 도입으로 6세는 과거보다 형식적인 교육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4.2. 기관 수준: ECEC의 학교화?학교의 ECEC화?

ECEC 기관은 6세가 유아학급으로 가고 5세 이하 유아만 남음에 따라 초등준비교육에서 벗어나 발달에 기초한 방법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유아학급 도입으로 열린교육과 아동중심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교과내용중심적인 양상에서 벗어나 ECEC 기관의 교육관행과 비슷해졌다. 따라서 유아학급 도입은 ECEC를 학교화하기보다 초등학교를 ECEC화 했다고 볼 수 있다.

### 4.3. 사회 수준: ECEC의 위상

ECEC는 보건복지부 관할 하에 사회 정책에서 높은 지위를 점하고, 정치가나 공무원도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유아학급 도입으로 ECEC가 기득권을 상실하고 교육부문의 주변적 요소로 남을 것이라는 염려가 생겨났다. 그러나 이는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ECEC에 대한 공적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된다. ECEC가 학교교육에 통합됨에 따라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로서 모든 아동에게 ECEC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정당화되었기 때문이다.

## 5. 결론

스웨덴 사례로 볼 때 5세 조기취학은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 만약 대통령과 미래기획위원회의 강력한 의지로 취학연령 하향화 방안이 끝까지 철회되지 않을 경우 병설유치원의 확대함으로써 ECEC를 공교육화 하는 것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스웨덴 유아학급 도입이 ECEC와 초등교육의 연계의 성공 사례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유아학급이 의무교육 과정에 편제됨으로 인해 몇 가지 부작용이 나타났음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 이와 유사한 전이 과정(병설유치원 확대)을 도입할 경우 반드시 유아교사가 5세아를 맡고 초등교육이 아니라 ECEC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 참 고 문 헌

Taguchi, H. L., & Munkammar, I. (2003). *Consolidating governmental ECEC services under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Paris: UNESCO.